

○
《冬松記(동송기)》
○

겨울 남산의 나무들 사이에서

한시 · 글 윤호 이진호
서예 윤정임 오섭

장흥이 푸른 것 회도 화는
불거 잇나 도 화야 구랑 마라
너는 일즉시 흥 식이 타 마도
수철을 흥 식은 흥 켜 인가
후노라

윤호

이진호

계절이 내려앉은 남산

12월이 되면 남산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든다.
바람은 낮게 흐르고, 나무들의 생동감도 한결 느려진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자리인데도 묘하게 고요하다.
11월, 단풍이 한 번 환하게 산을 물들이고 지나간 뒤에는 색이 빠진 자리마다
겨울의 결이 드러난다.
그 풍경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소나무들이다.
남산에 소나무가 많다는 사실은 남산을 천천히 둘러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감된다.
남산을 상징하는 수종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산의 능선과 방향을 따라
소나무들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남산이 소나무만으로 이루어진 산은 아니다.
사방에서 다른 나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계절을 건넌다.
가을이면 단풍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색을 더하고, 봄이면 산벚이 흐드러진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나무가 잎을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소나무의 푸름이 한층 또렷해진다.

한 장의 서예 작품이 건네는 겨울의 리듬

운정 엄오섭(雲亭 嚴五燮) 선생의 흘림체 작품을 다시 펼쳐보았다.
한지 위에서 묵향이 번지는 속도,
붓끝이 지나간 길목의 여백,
이가 빠진 듯한 농담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겨울 풍경처럼 차분했다.
작품 속에 적힌 시조는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구절이지만
흘림체로 쓰인 문장은 의미보다 먼저 분위기가 와닿는다.

“장송이 푸른 곁에 도화는 붉어 있다
도화야 자랑마라 너는 일시 춘색이라
사절춘색은 술뿐인가 하노라”

소나무와 도화의 대비는 굳이 우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도화가 순간의 찬란함을 맡는다면 소나무는 오래도록 풍경을 지탱하는 쪽에 가깝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귀할 이유는 없다.
운정 선생의 글씨는 그 두 곁을 억지로 묶지 않는다.
붓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굽고 펴지듯 자연도 각자의 방식대로 계절을 받아들인다.



소나무를 향한 인간의 마음

남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나무들 보다 소나무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버팀목으로 받친 나무, 노쇠한 줄기에 놓인 수간주사, 바람에 쓰러지지 말고 잘 자라라고 둘러놓은 사람들의 보살핌들이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한다.

소나무가 남산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애정이 그리 낯설지는 않다.

겨울에도 푸르고, 어느 계절에 보아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남산과 서울타워를 함께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나무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오래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정도의 도움은 정말 소나무에게 필요한 것일까?

자연의 생로병사까지 인간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

물론 지구환경의 변화가 숲의 질서를 흔드는 시대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나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시간과 과정을

인간이 너무 서둘러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남는다.

한시 <冬松自賞> — 자연이 스스로 견딜 힘

이런 생각이 이어지던 어느 겨울, 나는 남산의 소나무를 바라보며 한 편의 시를 적었다.

冬松自賞 (동송자상)

蒼枝立雪影猶堅 (창지입설경유견)

푸른 가지 눈 속에서도 그림자는 여전히 단단하고

歲晏寒風吹不偏 (세안한풍취불편)

세안의 바람이 불어도 중심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네

萬木摧時君自在 (만목취시군자재)

온갖 나무 시들어도 그대는 스스로 제 자리를 지키고

孤心有節度春前 (고심유절도춘전)

고요한 마음에 절도가 있으니 봄보다 먼저 빛이 난다

이 시의 뜻을 ‘강인함’으로 단정 짓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되 내부의 질서를 잃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이것은 나무의 방식이자 자연이 지닌 오래된 생종과 삶의 기술이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한다는 것

남산의 숲을 걷고 있노라면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지켜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진다.

소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들어올 것이다.

늙은 나무가 스러지면 그만의 방식으로 숲의 순환에 기여할 것이다.
그 변화는 슬픔보다 숲이 오랫동안 이어온 방식에 가깝다.
인간의 개입이 지나치면 자연이 가진 고유의 호흡이 흐려질 때도 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숲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
계절을 건너온 나무들은 우리보다 느리고 우리보다 오래 생각한다.
그 느림을 존중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진 시간을 그대로 지켜보는 데서 시작된다.

맺음 - 겨울 소나무가 남기는 질문

겨울의 남산은 말수는 줄어들지만 분명한 질문을 품고 있다.

“너희는 자연을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자연을 너희들 방식으로 완성하려 하는가.”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소나무의 푸름이 겨울 내내 푸르고 시들지 않는 이유도,

다른 나무들이 잎을 모두 내려놓는 이유도 굳이 청송하거나 폄하할 필요가 없다.

자연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계절을 건너갈 뿐이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겨울 남산의 소나무들은 마치 운정 선생의 서예 작품처럼

과장 없이, 침묵으로, 자신의 걸을 보여준다.

며칠 전 바라보았던 운정 선생의 흘림체 작품 또한 그러했다.

획마다 머뭇거림 없이 이어지는 선의 흐름,

먹빛의 농담 사이에 감춰진 긴 호흡,

그리고 한 줄의 여백이 남기는 묵직한 침묵.

그 작품은 소나무의 푸름과 같이

자연의 리듬을 억지로 세우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겨울 남산의 바람을 마주한 소나무처럼,

한 줄의 먹빛 속에 담긴 그 고요함은

내게 조용히 일렁이는 하나의 마음을 남긴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것.”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는 오늘도 남산의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한시·글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운정 엄오섭(雲亭 嚴五燮)

-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 초대작가
- 공무원 미술대전 입선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 문인화 교육 강사 1급